

2007. 11. 8.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7년 11월 9일(금)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우리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일 시: 2007년 11월 9일(금) 14:00~18:30

- 장 소: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

□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면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경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

□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교육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수행한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개념 정립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올바른 경제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

※ 경제교육협의회(KCEE : Kore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경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은행, JA 코리아, KDI 경제정보센터(가나다 순) 등이 공동 설립한 경제교육 협의체

□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정립 등 총 4편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경제교육의 지향해야 할 방향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이번 세미나의 경제교육 실태조사와 경제교육 표준개념 정립은 계획된 연구내용의 일부를 분석한 것으로 후속연구로 보완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박명호,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장>-첨부1 참조

□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 및 경제의식 조사 결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

- 경제이해력 수준은 미국에 비해 5점 이상 낮고, 청소년의 2/3 가량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 우리 경제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의 경제의식은 우리의 국가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점에서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정하고, 학교 경제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와 현행 입시제도 개선, 교사 양성 과정에 경제전공 신설 및 재교육 체계의 개선
-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전문성 및 중립성을 지닌 경제교육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위주로 운영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첨부2 참조

□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

- 수도권 및 일부 집단에 국한되었던 연구 대상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
- 각급 학교 수요자(학생·학부모)와 공급자(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우선 고등학교 공급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

□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경제전공 교사는 10.6%에 불과
 -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과목을 2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가 30%로 경제학 학습 배경이 매우 취약
- 경제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유로서 전공과 일치된다는 응답이 29.1%에 불과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시수배분 과정에서 임의로 담당하게 된다고 47.7%가 응답
- 교사들이 수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참고서와 문제집 28.9%, 교사용 지도서 27.9%로 나타났음.
- 학교 밖 경제교육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한 비율도 17.2%에 불과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제교육 연계성이 저조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김용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첨부3 참조

- 경제교육의 범위를 소비활동, 생산활동, 금융활동, 경제시민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
- 성인학습자들의 경제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11%만이 경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은 낮지만, 향후 경제교육 참여의사는 61.1%로 높아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교육이 필요
- 경제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성인학습자와 기관 모두 생산활동과 금융활동에 관련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의 향후 경제교육에 대한 요구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요구가 61.4%로 가장 높음
- 학력과 소득이 높고 관리직, 전문직, 일반사무직인 경우는 경제교육 참여경험이 높고 향후 경제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았으나, 중졸 이하의 학력과 소득이 낮은 경우, 60대 이상,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 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 등은 참여경험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참여의지도 낮음.
 - 경제교육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취약계층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됨.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첨부4 참조

- 청소년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제개념들이 경제원론에서 추출되었기에 배우기 어렵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한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표준(안)의 설정은 보다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따라서 경제교육 표준(안) 정립 기준은,
 - 학교 경제교육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개념에 맞춰 간결하고 단순해야 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해야 함.
 - 현재 경제상황의 이해를 통해 미래경제 변화에 대비하는 융통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성 필요

□ 이러한 정립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교육 표준(안)은 12개의 기본 개념과 33개의 내용 요소 및 75개의 주제로 구성하여 표준 개념을 마련

- 학생에게 적합한지, 난이도는 적절한지를 비롯하여 학년별 이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수준별 학습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 필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열, KDI 연구위원> - 첨부5 참조

□ 대공황에 관련된 서술들에는 사실관계의 오류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과 비논리적인 추론 등을 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이는 필자들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검정위원들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함.

□ 대공황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과 교과서의 “목적론적 해석”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의 결과로,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

- 미국의 경우, 뉴딜 정책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뉴딜의 개별정책들이 의도한대로 경기를 부양시키지는 못하였음. 따라서 국가개입이 대공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프로그램]

2007년 11월9일(금)

14:00~14:30 등록

14:30~14:40 개 회

개회사 : 이영선 (한국경제학회장)

환영사 : 설광언 (KDI 부원장)

축 사 :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

14:40~15:20 **패널토론: 경제교육 활성화**

사회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제 : 박명호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 :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30대 한국경제학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 35대 한국경제학회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15:20~15:30 휴 식

제1부 : 경제교육 실태조사

사회 :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 35대 한국경제학회장)

15:30~15:50 **제1주제 :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발표 :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15:50~16:10 **제2주제 : 학교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발표 : 김용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10~16:50 **제1주제 토론 : 차혁성 (서울사대부고 교사)**

오영수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제2주제 토론 : 정규재 (환경 논설위원 겸 경제교육연구소장)

김학렬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원장)

16:50~17:00 휴 식

제2부 : 경제교육 표준정립

사회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17:00~17:20 **제3주제 : 경제교육 표준개념**

발표 :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20~17:40 **제4주제 :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김두얼 (KDI 연구위원)

17:40~18:20 **제3주제 토론 : 박영석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제4주제 토론 : 최윤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섭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학교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 개념은 경제교육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임.

[패널토론] 경제교육 활성화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박명호(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청소년 관련 경제의식 조사 결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경제 이해력 수준은 미국학생보다 5점 이상 낮은 평균 56점 수준이고, 2/3 가량이 기업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사의 경제 인지도 조사 결과 교사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인지도는 52.4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경제 및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
 -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인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현재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제부처, 교육 당국, 학계, 공공·민간 경제교육단체 등을 포함하는 순수한 경제교육협의체가 없고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경제교육협의회가 있음.
- 국가경쟁력과 경제교육 제고 측면에서도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
-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 경제교육의 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교육내용/방법 설정
 -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공급되는 경제교육과 사회적 수요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우리 실정에 부합한 표준개념 설정

- 학생의 학습 선택권의 확대 및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경제교육의 내실화
- 교사 공급 및 재교육 체계 개선
 - 상경대 학생의 사회과 교사 임용 가능, 사범대의 일반사회 전공에 경제전공 분야 추가, 경제과목 수강 강화
-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경제전문가 중심의 민간 위주로 수행
 -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육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조정을 통한 경제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제교육협의회체 구성(미국의 NCEE를 벤치마킹하여 민간 중심으로 구성)
 - 전 생애에 걸친 경제교육 연계방안 강구 및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경제교육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강화 및 수범사례 발굴
 - 자유기업원의 대학시장경제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 사례
- 기존 사회과목의 편재 및 사회과목 개정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육 수요에 대한 일반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과목 편재 및 교과과정 개편 시 사회수요를 적극 반영

[제1부] 경제교육 실태조사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최근 올바른 경제관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내실있는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 동안,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및 경제교육 주체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¹⁾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가 미흡
- 이번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경제교육을 위한 자원현황, 교육과정, 수요자(학생·학부모)와 공급자(학교·교사)의 요구와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자료로 제시
 -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개별적·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관련 선행연구들과 달리, 경제교육협회의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신뢰도 및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연구의 대상이 수도권이나 일부 집단에 한정되었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학교급, 지역, 설립유형,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 경제 관련 선택과목의 선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표본을 추출,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
 - 경제교육에 있어서 각급 학교 수요자(학생·학부모)와 공급자(학교·교사)의 문제점과 요구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등 그 연구대상이 다양하다는 점 역시 본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1)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 및 과제』(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고등학생들의 경제의식에 관한 소고』(서위태, 1993), 『한일 청소년의 경제의식 비교연구』(조영달, 1995), 『국민경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천 방안』(김경근, 1996), 『중고생 경제의식 결과와 시사점』(김재원;최호상, 2002),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경제의식 조사연구』(최병모;김정호;허인숙, 2004), 『세계화·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의식 및 의견분석』(최병모;김진영;조병철;안상환, 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04),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경제교육 : 담당교사들의 경제인식 능력 및 경제의식 조사연구』(허인숙;최병모;김정호, 2005), 『21세기 경제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교사 경제의식 조사』(최병모;김일태;조병철;장중용, 2005),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2006) 등

□ 현재 학교 및 경제 영역 교사 대상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 결과 가운데 고등학교의 학교·교사 현황을 우선 분석

○ 대상

- 고등학교 : 전국의 고등학교 600개
- 교사 : 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경제교육 담당 교사

○ 조사방법 : 전자설문 방식을 이용한 면접법

○ 조사기간 : 2007. 10. 2 ~ 2007. 10. 20

□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 경제영역 담당 교사의 학습배경

- 전체 응답 교사 중 (일반)사회교육 및 경제학과 출신 교사는 80.4%(경제학 전공자 10.6%)에 이르지만, 교육대학원의 (일반)사회교육과와 교원대 공통사회교육과의 경제과목 이수는 매우 취약
- 학부에서 경제와 관련한 과목을 두 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가 30%에 달해, 교사들의 경제학 학습배경이 취약
- 이러한 경향은 지역 규모가 작고 전문계 비상업계열일수록 크게 나타나, 교사들에게 정책적으로 재교육 연수기회가 필요

○ 경제 수업의 투입 요소

- 교사들은 ‘학부 전공과 일치’(29.1%)여부보다는 ‘시수 배분 과정’(47.7%)에서 임의로 경제영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응답.
- 경제 영역의 수업은 86.4%의 교사들이 설명식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신문활용 수업이 보조적인 수업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

○ 경제관련 교과서와 보조자료

- 교사들은 교과서의 ‘본문 가독성’을 가장 중시(41.9%)하지만, 읽기 자료 및 탐구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37.1%).
- 대부분의 교사들이 참고서와 문제집(28.9%), 교사용 지도서(27.9%)를 보조자료로서 주로 사용하지만, 대도시, 일반계 고등학교, 낮은 연령대의 교사일수록 경제관련 전문서적, 경제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

○ 경제관련 수업의 평가

- 정규고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으로 다지선다형이 93.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 2순위로는 단답형이 4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수행평가의 경우 ‘보고서’ 형식이 가장 높은 비중(40.8%)을 차지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소도시가 중·대도시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NIE 학습지가 2순위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15.4%)

○ 학교 밖 자원의 활용

- 대부분의 학교가 경제교육 관련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1.6%)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 역시 학교 밖 경제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81.1%)
- 특히, 학교 밖 경제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기회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소도시의 경우 그 참여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남.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

김용자(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 본 연구는 경제교육의 범위를 소비활동, 생산활동, 금융활동, 경제시민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이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기대

1. 경제교육 참여실태

- 성인학습자들의 경제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11%만이 경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
 - 참여한 경제교육 내용은 주로 생산활동, 금융활동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경제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시간부족, 교육받을 기회 부족, 필요성 인식 못함,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등임
- 학력과 소득이 높고 관리직, 전문직, 일반사무직인 경우에 다른 집단보다 경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교육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에 제한되어 있음.

2.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향후 경제교육 참여 의사

- 성인학습자와 기관의 경제교육 필요성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각각 3.38점, 3.72점으로 기관의 경우에 필요성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세부 영역별로는 금융활동과 생산활동 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또한 성인학습자들은 향후 금융활동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주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직업지위가 낮고, 지역적으로도 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인 경우에 경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필요성 인식도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교육에 참여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재정적·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 성인학습자들이 향후 경제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교육기관의 공신력 등을 크게 고려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전문단체 및 기관, 기업연수원, 직장연수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에서 경제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강사 중심의 강의학습, 토론식 참여학습, 인터넷을 통한 원격학습, 현장 실습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요구

3.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전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참여동기 및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필요성, 효과,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
- 경제교육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운영하고, 인터넷 교육이나 방송을 통한 교육 등을 널리 보급하는 등 경제교육 참여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경제교육 관련 정보를 국가적 수준에서 구축·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 정보 제공의 체계성이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경제교육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교육 지원책 수립

- 경제교육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 높은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제2부] 경제교육 표준 정립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경동(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20여년 전인 1987년을 전후하여 처음으로 ‘학교 경제교육 개편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에도 다음과 같이 경제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교과서가 추상적인 이론 위주로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며,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고, 경제교육에 배분되는 시간이 부족하며,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능력과 관련된 교사양성의 문제 및 현직 연구과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그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경제지식(주로 개념과 이론으로 구성되는 경제학적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이해도와 흥미 부족” 등임(한국교육개발원, 1987).

- 그러나 20여년 전 제기된 경제교육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어느 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경제의식마저 왜곡되는 경향이 있음.

- 즉,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아닌 공익추구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빈부격차나 부정부패 등을 대표적인 이미지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제교육의 문제나 어려움은 피학습자의 이해 정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저런 개념과 내용들이 시장경제의 이해에 꼭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인한 측면이 큼.

- 특히 청소년 경제교육에 필요한 개념들이 대학 수준의 경제학원론으로부터 추출된 결과, 경제과목 수업 시간의 부족과 함께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음은 물론 현실 경제와의 괴리도 남아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사례 중심의 문헌조사와 함께 경제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맞는 「경제교육 표준(안)」을 정립하고자 하였음.
 -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시장경제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Economic Education, NCEE)의 20가지 표준개념 등을 조사 분석하였음(NCEE의 20개 표준개념과 관계 개념은 <붙임 2> 참조).
 - 또한 경제교육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려운 개념, 필요함에도 미비한 개념,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 개념들을 검토함.

- 「경제교육 표준(안)」의 정립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학교 경제교육을 위해 핵심적 원리와 개념에 초점을 맞춘 간결성과 단순성
 -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개념과 내용으로 실용성과 적용성
 -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 경제 변동에 대비하는 융통성과 보편성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보완성

- 「경제교육 표준(안)」은 희소성과 선택, 경제체제와 제도, 시장과 경쟁, 수요·공급과 가격, 생산과 소비, 화폐와 금융, 임금과 이자, 정부의 역할, 국민소득, 실업과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환율 등 12개의 「기본개념」과 함께 33개의 「내용요소」, 75개의 「주제」로 구성됨(세부 내역은 <붙임 1> 참조).
 - 또한 경제적 추론이나 교육적 의미, 사례 등이 포함되었음.

- 「경제교육 표준(안)」은 청소년 경제교육에 보다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서 현장에서의 경제과목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경제기관들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있어서 핵심 내용과 해당 기관들의 독자적 경제교육 내용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더욱이 초·중·고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콘텐츠를 구성하는 외에 구체적 활용성도 가미될 수 있어서 현재 표준교재 없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에 지시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경제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표준(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우선 「경제교육 표준(안)」이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난이도에 문제는 없는지, 양적으로 과도한지, 부문간(기초 개념,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등) 이해에 편차가 심하지 않는가 등에 대해 테스트 문항을 작성하여 이해도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교육 표준(안)」의 적용과 활용을 위해 학년별/수준별 이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서와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사항, 책자 형태에 의한 보완 교재, 동영상 등의 보조 학습 자료 제작 등이 「경제교육 표준(안)」의 정립을 위해 보완되어야 함.

<붙임 1> 기본개념(12) · 내용요소(33) · 주제(75)

| 기본개념 | 내용요소 | 주제 |
|----------------|------------------|---|
| 1. 희소성과 선택 | 1.1 희소성 | ○ 왜 돈을 주고 생수를 사먹을까? ○ 희소성은 나쁜 것인가? |
| | 1.2 기회비용 | ○ 대학진학의 기회비용(타이거 우즈, 고졸 야구선수, 빌 게이츠) ○ 브라질 원주민의 화전개간과 환경보호(새만금) |
| | 1.3 합리적 선택 | ○ 잃어버린 극장표 ○ 빈 좌석에 할인 가격으로 탑승하려는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항공사 |
| 2. 경제체제와 제도 | 2.1 시장경제체제 | ○ 중국의 시장경제 원리 도입 ○ 멸종동물 보호제도와 사유권 |
| | 2.2 제도 | ○ MP3 복제 ○ 자유기업제도 |
| 3. 시장과 경쟁 | 3.1 교환 | ○ 악어와 악어새 |
| | 3.2 특허 | ○ 변호사와 자신의 소송 ○ 싱가포르의 특허 |
| | 3.3 시장경쟁 | ○ 올림픽게임 대 시장게임의 비교 ○ 독과점 규제 |
| 4. 수요 · 공급과 가격 | 4.1 수요 | ○ 왜 초·중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을까? ○ 바가지요금 시비(휴가지 숙박요금, 대학입시 숙박요금) |
| | 4.2 공급 | ○ 왜 쌀, 쇠고기가 미국에서는 싼 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쌀까? ○ 왜 우리나라에서는 밀밭이 사라지게 됐을까? |
| | 4.3 가격 | ○ 흉년과 풍년의 농산물 가격 ○ 가격 규제 |
| 5. 생산과 소비 | 5.1 생산활동 | ○ 발명대회 ○ 기술혁신과 일자리(KT 자동교환시스템과 일자리) |
| | 5.2 기업가 정신과 기업윤리 | ○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핸드폰) ○ 도전정신: 창업, 안철수 ○ 두부제조와 청산가리(석회) 사용 |
| | 5.3 이윤 | ○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있다. ○ 도산기업: 이윤 추구 - 도산 - 사회적 비용 (한보철강) |
| | 5.4 노동 | ○ 여가와 노동의 선택 (미국 회사의 - 부사장) ○ 인적자본의 중요성 (교육) ○ 수능시험 성적과 전공선택(직업선택) |
| | 5.5 소비활동 | ○ 소비자주권(소비자 기대와 도산) ○ 과소비, 비합리적 소비?(빌 게이츠의 자가용 비행기, 기부) ○ 소비와 경제발전 (박제가의 우물론) |
| 6. 화폐와 금융 | 6.1 화폐 | ○ 미래의 화폐 (도토리) ○ 과거의 화폐 (화폐가치) |
| | 6.2 금융 | ○ 부시 vs. 그린스핀 ○ 저축과 차입: 저축할 수 없고, 차입할 수 없는 사회 ○ 금리 등락과 소비 (채권자/채무자) |
| | 6.3 자산관리와 신용관리 | ○ 신용카드? 외상카드! (신용불량) ○ 청년과 노인의 자산구성 비교 ○ 세 개의 주머니(분산투자) |

| | | |
|---------------|----------------|---|
| 7. 임금과 이자 | 7.1 임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임금 vs. 효율 임금 (연공서열제 vs. 자유계약제) ○ 임금피크제 ○ 고임금 시비(월가 하루에 4,000억....) ○ 학력별, 국적별, 성별 임금격차 |
| | 7.2 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까? ○ 이자제한법 (사채 금리, 규제해야 하나?)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제도 (주택담보대출...) |
| 8. 정부의 역할 | 8.1 정부수입과 정부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예산 구성분석 ○ 균형재정과 국가채무 |
| | 8.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조류독감 방역) ○ 환경오염과 탄소배출권 ○ 불안전 정보(도덕적 해이, 역선택) ○ 민간교도소 운영 (아카펠라 재단) |
| 9. 국민소득 | 9.1 국내총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분배, 한국경제의 선택은? ○ 양극화 문제와 한국 경제의 선택 |
| | 9.2 국민총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사회의 그림자 ○ 지하경제와 국민소득 |
| 10. 실업과 인플레이션 | 10.1 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실업 ○ 경제의 건강상태는 무엇으로 체크하는가? |
| | 10.2 인플레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이야기 ○ 연금생활자의 어려움 (인플레이션의 이해득실 집단) |
| | 10.3 경기안정화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맡길까, 개입할까? (통화주의 vs. 케인지안) ○ 두 마리 토끼 -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문제 |
| 11. 국제무역 | 11.1 자유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는 일자리를 줄일까? ○ 남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 | 11.2 보호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토불이와 친환경 농업 ○ 독일의 보호무역과 라인강의 기적 |
| | 11.3 시장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쿼터 ○ WTO와 중국경제 |
| 12. 환율 | 12.1 외환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 보유고, 어느 정도가 좋을까? ○ 외환을 잘 사고 파는 것도 재테크가 된다고? |
| | 12.2 환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흑자/적자 항상 좋은가/나쁜가? ○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일본으로 여행을 가야지 |

<붙임 2> 미국 NCEE의 20개 표준과 관계 개념

| | 표준 | 관계 개념 |
|----|-------------------------|--|
| 1 | 희소성 (18) | 자본자원, 선택, 소비자경제학, 소비자, 재화, 인적자원, 자연자원, 기회비용, 생산자, 생산, 생산자원, 희소성, 서비스, 욕망, 기업가정신, 발명가, 기업가, 생산요소, |
| 2 | 한계 비용/편익 (8) | 의사결정, 이윤동기, 편익, 비용, 한계분석, 이윤, 이윤극대화, 비용-편익분석 |
| 3 | 재화와 용역의 배분 (6) | 경제체제, 시장구조, 공급, 명령경제, 시장경제, 전통경제 |
| 4 | 인센티브의 역할 (2) | 선택, 인센티브 |
| 5 | 거래 이익 (7) | 거래장벽, 물물교환, 수출, 수입, 자발적 교환, 교환, 교환비용 |
| 6 | 전문화와 거래 (10) | 분업, 생산, 생산자원, 전문화, 부존요소, 거래 이익, 상대 가격, 거래비용, 생산요소, 완전고용 |
| 7 | 시장-가격과 수량 결정 (8) | 시장구조, 시장, 가격하한제, 가격 안정성, 수요량, 공급량, 상대가격, 교환비용 |
| 8 | 시장체제에서 가격의 역할 (11) | 비가격 결정요소, 가격하한제, 가격안정성, 공급, 수요의 결정요소, 공급의 결정요소, 수요법칙, 공급법칙, 가격상한제, 대체제, 가격 |
| 9 | 경쟁의 역할 (3) | 시장구조, 비가격 경쟁, 경쟁수준 |
| 10 | 경제체제의 역할 (10) | 법과 사회제도, 주택대출, 차입자, 이자, 노동조합, 기업의 법적 형태,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 비영리기구, 소유권, 은행 |
| 11 | 화폐의 역할 (8) | 교환, 자산(화폐)관리, 화폐공급, 현금, 화폐의 정의, 화폐, 화폐의 성격, 화폐의 기능 |
| 12 | 이자의 역할 (7) | 이자율, 통화정책, 실질과 명목, 위험, 투자행위, 저축자, 저축 |
| 13 | 소득 결정에서 자원의 역할 (13) | 인적 자원, 파생 수요, 소득의 기능적 분배, 노동, 노동시장, 한계요소생산, 소득의 인적 분배, 임금, 총수요, 총공급, 수요, 요소가격, 기능적 분배 |
| 14 | 이윤과 기업가 | 과세, 비용, 생산비용, 기업가, 위험, 조세, 비용-편익분석, 혁신, 기업가정신, 발명가 |
| 15 | 성장 (27) | 인센티브, 이자율, 기회비용, 생산, 기술변화, 상충, 목표 간 상충, 인적자본, 집약적 성장, 투자, 물적자본, 생산성, 위험, 생활수준,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형평성,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성장, 경제적 안전, 투자행위, 경영, 경영과 가계, 생산요소, 건강과 영양, 저축자, 저축, 증권시장 |
| 16 | 정부의 역할 (22) | 외부성, 소득, 자연독점, 소득재분배, 정부 역할, 과세, 이전지출, 채권, 소득 분배, 소득세, 경쟁유지, 독점, 부정적 외부성, 불균형시장, 긍정적 외부성, 소유권, 공공재, 규제유지, 조세, 규제, 정부지출, 정부수입 |
| 17 |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4) | 비용-편익분석, 편익, 비용, 이익집단, 거래장벽 |
| 18 | 거시경제-소득/실업, 물가 (7) | GDP, 거시경제지표, 명목GDP, 1인당GDP, 잠재GDP, 실질GDP, 순환구조 |
| 19 | 실업, 물가 (8) | 실업의 종류, 인플레이션의 원인, 소비자물가지수, 디플레이션, 노동력, 실업, 실업률, 인플레이션 |
| 20 | 금융-재정정책 (14) | 인플레이션, 국가부채, 통화정책 수단, 재할인율, 정부예산, 재정정책, 금융정책,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 예산, 적자예산, 중앙은행제도, 흑자예산, 인플레이션의 원인 |

주: ()은 해당 표준의 관계개념 수임.

자료: <http://www.ncee.net/ea/standards/>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얼(KDI 연구위원)

- 1930년대 세계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발전 추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대개 국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대공황을 언급
 - 대공황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반 해석은 “자유방임주의⇒과잉생산/과소소비⇒대공황⇒국가개입⇒경제회복”이라는 구조를 가짐.
 - 즉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자본주의 경제 혹은 시장경제의 취약성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대공황이며, “수정자본주의” 혹은 “혼합자본주의”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은 시장경제의 본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함을 역설.
- 대공황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과 교과서의 “목적론적 해석”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의 결과로,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
 - 대공황을 기점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이 증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공황이 국가개입 부재 혹은 시장경제의 본원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
 - 교과서들이 근거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과소소비론적 해석과는 달리 1920년대 미국경제에 구조적인 과소소비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음(총소비는 증가하고 있었음).
 - 미국의 경우, 뉴딜 정책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뉴딜의 개별정책들이 의도한대로 경기를 부양시키지는 못하였음. 따라서 국가개입이 대공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뉴딜이 시작된 1933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긴 하였으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림
 - 교과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뉴딜정책은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 통설

- 뉴딜의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나아가 대공황에 관련된 서술들에는 사실관계의 오류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과 비논리적인 추론 등을 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대공황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부잣집 주인이 우유로 목욕하고 개에게 스테이크를 먹이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갔다”는, 정치선동전단이나 쓸 만한 문구를 버젓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한 것과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됨.
- 이것은 필자들에게 대한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검정위원들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함

□ 대공황에 대한 서술은 다양한 방식으로의 개선이 가능함.

-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경우, (즉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적 변화 추이에서 국가개입의 확대를 설명하는 계기로 대공황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대공황을 국가개입확대의 기점으로 설명하되, 대공황이 국가개입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배제해야 함.
 - 1980년대 이후 대공황에 대한 경제사학계의 연구들은 대공황이 시장의 취약성보다는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충격과 금본위제 고수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줌.
- 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함. 예를 들어 GATT나 WTO 등과 같은 국제무역기구의 등장 배경에는 대공황이 블록경제화 때문에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따라서 세계화와 관련된 부문에서 대공황을 다루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